

# 八卦의 人體配屬과 診斷學的인 運用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金晶圭·尹暢烈

I. 序論	112
II. 本論	113
1. 先後天 八卦를 人體에 配屬할 때 사용되는 規則과 假說	113
2. 全身의 八卦配屬	116
3. 頭面部의 八卦配屬	119
4. 眼部의 八卦配屬	121
5. 耳部의 八卦配屬	122
6. 口舌部의 八卦配屬	123
(1) 舌診	123
(2) 脣診	124
7. 鼻部의 八卦配屬	125
8. 手部의 八卦配屬	125
9. 腹部의 八卦配屬	128
(1) 腹診	128
(2) 臍診	128
10. 足部의 八卦配屬	129
11. 脈診의 八卦에 따른 分類	131
(1) 脈象의 八卦 配屬	131
(2) 脈의 診察部位와 八卦의 配屬	132
12. 八綱辨證과 八卦의 關係	133
III. 結論	135
參考文獻	135

# 八卦의 人體配屬과 診斷學的인 運用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金晶圭·尹暢烈

## 中文抄錄

### 八卦與人體的配屬關係及其在診斷學方面的運用

通過對人體與八卦的配屬關係及其在診斷學運用方面的研究，得到了如下結論。1. 從後天八卦的原理適用於所有局部診斷來看，作者認為應按某種原則將人體與後天八卦進行配屬的設想妥當。2. 作者認為人體當中具有太極原理的全身、手掌及臍部均可配屬先天八卦的假說亦通過各自的局部診斷來看，這種結果妥當。3. 局部診斷中無法與先後天八卦進行正確的配屬時，應通過在全體八卦圖中為體的垂直定位的乾坤與坎離來掌握先後天的原理。4. 在與先天八卦進行相配屬時，應考慮乾首上坤腹下的垂直定位關係，把該局部看作是一個整個人體的縮小版，在與後天八卦進行相配屬時，應考慮離心上坎腎下的垂直定位關係，將局部看作是臟腑的縮小版。5. 對於難以進行說明的脈象或辨證原理，如果有八卦的援助，則會解釋得非常容易。例如可應用於脈象的分類，部位的八卦配屬，浮沈的八卦配屬以及辨證的升降浮沈等。

## 1. 序論

《周易》과 醫學의 關係는 크게 두가지 觀點에서 理解되어진다. 《周易》의 原理가 곧 醫學의 基本原理라고 認識하고 醫學의 모든 原理를 《周易》의 原理를 가지고 說明하려는 勞力을 하는 觀點이 있을 수 있고, 醫學의 各種 技法에 《周易》의 原理를 應用하여 體系化하려는 勞力이 있을 수 있다.

人體에 八卦를 配屬시키는 것도 《周易》의 原理를 醫學에 應用하여 體系化하려는 勞力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八卦란 太極이 一生二法을 따라

三變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로소 三才의 道를 갖추고 있으므로 小成卦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八卦는 先天과 後天의 原理에 따라서 配屬이 되어 先天八卦와 後天八卦를 이루게 된다. 先天八卦는 陰陽의 消長變化하는 基本原理로서 天道의 運行을 나타내고 있고, 後天八卦는 陰陽이 사귀어 化成하고 五行이 生剋調和하는 作用의 理致를 說明하고 있다.

八卦를 醫學에 應用하는 方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先後天八卦를 그 方位를 이루는 原理에 따라 人體의 各部에 配屬시키는 것으로 이 方法을 통하여 局部의 診斷이나 鍼灸治療에 應用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脈象, 證候,

理論들을 八卦를 가지고 體系化하는 것이다.

두 번째 方法으로 應用하는 것은 複雜하고 體系의이지 못한 여러 要素들을 理解하기 쉽게 要約할 수 있다는데서 그다지 큰 問題點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첫 번째 方法과 같은 應用은 자칫 機械的이고 觀念的으로 흐르기가 쉽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人體를 對象으로 하는 醫學에 있어서는 人體의 各 部位에 八卦가 配屬되는 原理에 대한 深刻한 苦悶과 研究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筆者는 醫易學 關聯書籍을 參考하여 人體에 八卦를 配屬할 때 考慮해야 할 原則을 探究하였고 最近에 나온 각종 局部診斷에 관한 書籍들을 參考하여 그 診斷法들과 八卦配屬과의 聯關性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脈象과 五色, 辨證의 體系化에 應用되는 八卦의 原理를 有關 書籍들을 통하여 考察하였다.

위와 같은 探究를 하던 중 人體에 八卦가 配屬될 때 發見할 수 있는 몇가지 規則性들을 發見할 수 있었으며 資料들 중에 새로운 診斷技法을 紹介하는 內容들을 發見할 수 있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先後天 八卦를 人體에 配屬할 때 사용되는 規則과 假說

先後天八卦圖를 人體에 配屬하여 醫學에 應用하기 위해서는 우선 先後天八卦가 주로 나타내고 있는 象徵에 대한 認識이 있어야 한다.

先天八卦圖는 하늘은 南쪽에 땅은 北쪽에 해는 東쪽에 달은 西쪽에 산은 西北, 못은 東南, 바람은

西南, 우레는 東北에 位置하는데 卦의 陰陽多少의 變化에 따른 配屬을 이루고 있어서 天地가 다하지 않고 宇宙가 變化하는 自然한 象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後天八卦圖는 周 文王이 伏羲의 易을 根據로 自然의 象을 取한 것으로 그 配列된 모습은 각 卦가 各 方位에 定立되어 있는 形態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 《醫易問談》에서는 “故로 先天은 取其天時不窮과 與宇宙變化之自然象이오 後天卦圖도 亦取其自然之象 而法其整立之極이라 先天之圓圖則卦氣之運行과 與天時之不窮과 及萬物之終始가 無不咸具라 故로 爲基本象이오 後天圓圖는 則日之陽火가 出於東方卯之生養處로대 而位於南方午之極旺處하야 以照四方之全體하고 入於西方酉之火死地라 月之陰水는 出於西方西(坎)之生養處로대 而位於北方子(壬)之極盛處하야 以照中夜之全體하고 入於東方卯(乙)之水死將盡處니라 雖不無運行之義나 而於生成之中에 旺極成實의 整立之義가 尤存하니 故로 離日是 位乎南午하고 坎月은 位乎北子이오 而離上坎下震東兌西也니라”<sup>1)</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先天八卦圖는 宇宙가 變化하는 卦氣의 運行, 天時의 不窮, 萬物의 終始의 象을 包含하고 있으므로 創造의 根源을 象徵하고 後天八卦圖는 定立과 완성의 象을 가지고 있어서 旺極, 成實의 意義가 많이 存在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先天은 則輕清之陽이 浮升居於上이오 重濁之陰이 沈降居於下之原始的의 如自然象이라 後天則因升降之作用 而既成天地萬物之後니라 天地日月이 各得自位之整立 而運行回轉하야 不失升降運行之本然機能이라 此所以整立完全象이니 故로 先天則譬之如環無斷之永遠의 天時오 後天則譬之如方無限之地오 包含空間也라 故로 古人이云 先天은 主乾坤坎離之交니 其交也는 將變而無定位하야 如天時之不窮也라 故曰應天이오 後天은

1) 李正來, 醫易問談, 東洋學術院, 大田, 1999. p. 74.

主坎離震兌之交요 其交也는 不變而有定位하고 如方而有常也니라<sup>2)</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先天은 輕淸한 陽이 위에 居하고 重濁한 陰이 아래에 居하는 自然의 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後天八卦는 升降의 作用이 完成되어 天地의 萬物이 생긴 이후의 일을 形象化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再論컨대 其先天은 則位主乾坤坎離之相交 而其交가 將變하야 如無定位이오 乾在上而生陰下降하고 坤在下而生陽上升하며 離在東而上升後降於西오 坎在西而下降後升於東이라 此所以應天時之不窮也라 後天은 則 乾坤交泰而退位하야 坎離得位而成 既濟라 震陽이 代父乾始事 而在東方하야 發生萬物하고 巽陰이 代坤母繼事 而在東南하야 長陽而 養陰이라 兌陰은 居西하야 受震陽春氣之始事 而 作秋實之成事라 皆有相交而不變其位오 含蓄無限之空間 而如地方有常이라 此所以應地方之有常也니라<sup>3)</sup>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위에서 言及한 內容을 敷衍說明한 것이다.

위에서 提示한 內容들을 考察하면 先天八卦는 創造, 永遠의 意味가 强하고 後天八卦는 完成, 無限의 意味가 强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八卦를 人體의 各 部位에 配屬하는 것은 그 部位가 發生한 基本原理를 探究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部位에 드러나는 完成된 變化의 結果를 把握하여 診斷과 治療에 應用하고자 하는 것을 考慮할 때 原則적으로 人體에는 八卦方位圖중에서 後天八卦方位圖를 배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혹가다 人體의 어느 部位에는 先天八卦圖를 配屬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이를 단지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든 法則에는 例外가 있다며 아무런 考證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先天八卦圖는 太極의 모습

을 象徵하고 있다. 따라서, 空間적인 의미를 가진 八卦의 配屬에 있어서도 그 안에 太極의 象을 품고 있다면 얼마든지 先天八卦를 配屬할 수 있다고 본다. 人體는 小宇宙이기 때문에 人體의 全身은 太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太極의 象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器官은 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八卦醫學》에서는 邵康節의 論述<sup>4)</sup>을 引用하여 實際로 手部는 하나의 人體縮小版이고 하나의 天地縮小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손 말고 先天八卦가 配屬되는 部位로 臍部를 들 수 있는데 《醫學輯要》에서는 배꼽은 一身의 中央으로 果實의 꼭지처럼 人身 中에서 가장 高貴하고 重要한 것으로 사람의 生命의 根源이라고 說明하고 있다.<sup>5)</sup>

以上の 內容을 살펴보면 太極의 內容을 形象하고 있는 全身과 手部八卦, 臍部八卦에는 先天八卦를 配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도 考察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손과 배꼽을 全身의 縮小版이라고 理解해야 한다.

現代 中國에서는 全身의 狀況을 人體局部에 局限시킬 수 있는 內容을 “全息律”이란 理論을 利用하여 說明하고 있다. 이것은 이름만 새로운 뿐이지 이미 韓醫學에서는 옛날부터 應用해오던 方法으로 어찌면 韓方의 모든 診斷法이 이 全息律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八卦與時間醫學》에서는 “全息生物醫學이란 人體의 어떤 部位를 專門적으로 研究하여 그것을 포함하는 全體의 情報를 얻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脈診, 舌診, 面診, 第二

4) “手는 仰하야 本乎天하야 親上하고 足은 方하야 俯乎地하야 親下하니라 手可翻覆이나 足不可者是 陽能兼陰이로대 陰不能兼陽也일새니라 掌之後高前下는 象地之西北多山 東南多水也라 聚爲川澤이니 掌中之文은 如川象也라 …… 由是觀之면 是天地之理가 畢掌可盡이니라”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56.

5) 宋点植撰, 醫學輯要, 文耕出版社, 大田, 1991. p. 63.

2) 李正來, 醫易問談, 東洋學術院, 大田, 1999. p. 76.

3) 李正來, 醫易問談, 東洋學術院, 大田, 1999. p. 78.

掌骨診法 등이 모두 局部와 全體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눈은 하나의 全息律이고 눈의 虹膜도 하나의 全息律이다.<sup>6)</sup>라고 하여 이 全息生物醫學의 定義를 제시하고 있고, “全息律 理論의 根源은 《周易》이다. 太極圖와 八卦圖는 한 쪽의 宇宙全息的 縮小版이고 六十四卦는 自然과 宇宙萬物의 全息圖象이다. 이는 萬物의 基本的인 規律를 包括하고 있다. 全息律의 基本的인 解說은 《周易》의 陰陽學說에서 根源을 찾을 수 있고 陰陽의 對立, 統一, 互根, 平衡, 依存, 消長, 轉化 등의 規律를 包含한다.”라고 하여 全息律 理論의 基源이 《周易》에서부터 始作한다고 말하고 있다.

人體의 局部 配屬을 先後天八卦에 配屬을 시킬 경우 機械的으로 精確하게 그 方位와 位置가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先天八卦의 代表는 四正方의 乾坤坎離이고 그 중에도 體를 이루는 乾坤의 定位만이 제대로 維持된다면 그 안에는 先天八卦의 原理를 담고 있다고 解釋할 수 있고 後天八卦의 경우는 四正方의 坎離震兌가 重要하며 그중에서도 體를 이루는 坎離의 定位만이 제대로 維持된다면 그 안에는 後天八卦의 原理를 담고 있다고 解釋할 수 있다. 이 內容을 根據로 人體 部位圖를 살펴보면 “乾爲首 坤爲腹 離爲目 坎爲耳”의 配屬은 乾坤이 上下의 體가 되고 離坎이 視聽의 用이 되는 先天八卦의 原理를 利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人體部位圖 中에 上部를 머리로 下部를 腹部로 配屬하여 乾坤이 定位하고 있는 部位圖에 는 先天八卦를 配屬할 수 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臟腑에 대한 傳來의 “上心 下腎 左肝 右肺”의 配屬方法은 당연히 後天八卦에 根據한 것으로 이처럼 局部에 人體의 臟腑만을 配屬하여

上部에 心臟을, 下部에 生殖器系統의 器官을 配屬한 診斷法들에는 모두 後天八卦를 配屬시킬 수 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八卦를 人體에 配屬시키는 規則이 다음과 같다는 假說을 提示한다.

첫째, 人體에는 原則的으로 後天八卦를 配屬시켜야 한다.

둘째, 太極의 原理를 담고 있는 全身, 手掌部, 臍部에는 先天八卦를 配屬시킬 수 있다.

셋째, 人體에 先天八卦를 配屬시킬 때에는 그 안에 全身의 縮小版이 숨어 있다고 認識해야 하고 後天八卦를 配屬시킬 때에는 臟腑의 縮小版이 숨어 있다고 認識해야 한다.

그리고, 配屬의 意味가 아닌 경우에도 八卦의 原理가 應用되는 곳이 있는데 그 代表的인 것이 望顔色시 각 顔色의 八卦配屬과 脈象의 分類, 八綱辨證에의 應用 등이다. 각각의 內容을 卦에 配屬하는 것은 쉽게 단정짓기 어렵지만 이 또한 《周易》의 原理를 통하여 考察을 하면 不可能한 것만은 아니다. 《周易說卦傳》에서는 八卦에 여러 가지 側面을 가지고 象을 提示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sup>7)</sup>

八卦象	乾	坤	震	巽	坎	離	艮	兌
自然	天	地	雷	風	水	火	山	澤
人間	夫	母	長男	長女	中男	中女	少男	少女
性質	健	順	動	入	陷	麗	止	說
動物	馬	牛	龍	鷄	豕	雉	狗	羊
身體	首	腹	足	股	耳	目	手	口
方位	西北	西南	東	東南	北	南	東北	西
雜				木 遜	雨 險	日 明		

以上の 圖表에 나오는 內容들을 參照하여 각각

6) 劉炳權 蘇祥編著, 八卦與時間醫學, 廣東科技出版社, 廣東省, 1995. p.130.

7)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서울, 1994. p.21.

의 脈象과 證候를 性質에 따라 卦에 配屬할 수 있다.

## 2. 全身의 八卦配屬

全身을 八卦에 配屬시키는 것에 대해서 《周易·說卦傳第九章》에서는 “乾爲首오 坤爲腹이오 震爲足이오 巽爲股오 坎爲耳오 離爲目이오 艮爲手오 兌爲口니라”<sup>8)</sup>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歷代 注家들의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乾爲首

○ 《類經圖翼·醫易義》 : 乾爲首는 陽尊居上也라<sup>9)</sup>

○ 建安丘氏<sup>10)</sup> : 首는 會諸陽하니 尊而在上이라<sup>11)</sup>

○ 孔穎達<sup>12)</sup> : 乾尊而在上爲首

○ 龔原<sup>13)</sup> : 其外圓諸陽之所聚者 首也

○ 徐芑舒<sup>14)</sup> : 首以君之

○ 《八卦醫學》 : 頭部는 “人體之尊”, “百骸之長”, “精明之府”, “諸陽之會”이기 때문이다.<sup>15)</sup>

여기에서 머리를 乾卦에 配屬한 理由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上, 會陽, 尊, 圓, 君의 意味들을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坤爲腹

○ 《類經圖翼·醫易義》 : 坤爲腹은 陰戶容物也오<sup>16)</sup>

○ 建安丘氏 : 腹은 藏諸陰하니 大而容物이라<sup>17)</sup>

○ 孔穎達 : 坤能包藏含容 故爲腹

○ 龔原 : 其中寬衆 陰之所藏者 腹也

○ 徐芑舒 : 腹以藏之

여기에서 坤을 배에 配屬한 理由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容物, 藏, 大, 寬衆 등의 意味를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震爲足

○ 《類經圖翼·醫易義》 : 震爲足은 剛動在下也라<sup>18)</sup>

○ 建安丘氏 : 足은 在下而動이라<sup>19)</sup>

○ 孔穎達 : 足能動用 故震爲足也 股隨于足 則巽順之謂

○ 《八卦醫學》 : 足腿部는 人體의 基盤이고 行하고 그치고 動하고 靜한 關鍵이며 坐臥屈伸의 기틀이다.<sup>20)</sup>

8) 編輯部, 周易正音, 洪易學會, 서울, 1996. p. 196.

9)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10) 邱富國 : 生沒年 未詳. 淳祐年에 벼슬에 나아갔다. 宋末元初의 建州 建安出身이므로 建安丘氏로 알려졌다. (본 論文의 人物 說明은 金碩鎭, 周易傳義大傳譯釋, 大有學堂, 서울, 1997. 과 蕭元主編, 周易大辭典, 一中社, 서울, 1992. 를 參考하였다.)

11)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12) 孔穎達 : (574 - 648년) 中國 唐代의 經學者. 字는 仲達. 諡號는 憲. 河北省 冀州 衡水(지금의 河北省)에서 出生함. 孔子의 32世孫. 隨나라 楊帝 때에 科擧에 及第하였으나 才能이 너무 뛰어나 暗殺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經學史의 큰 획을 긋는 《五經正義》를 撰하는데 重要な 役割을 하였다.

13) 龔原 : 생몰년 미상. 송나라 遂昌 사람. 字는 深父이다. 嘉祐 8年(1063)에 진사가 되어 國子直講, 兵工部侍郎 등을 역임했다. 어린 시절에 王安石을 師事했으므로 王安石의 글을 많이 引用했다. 著書에 《易傳》10卷, 《周易新講義》10卷 등이 있다.

14) 余芑舒 : 생몰년 미상. 元代의 易學者. 字는 蘊新. 號는 息齋. 易解說舒인 《讀易偶記》를 지었다.

15)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靑島出版社, 靑島, 1995. p. 243.

16)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17)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18)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19)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20)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靑島出版社, 靑島, 1995. p. 270.

여기에서 震卦가 足에 配屬된 理由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動, 在下 등의 意味를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巽爲股

○ 《類經圖翼·醫易義》：巽爲股는 兩垂而下也 오<sup>21)</sup>

○ 建安丘氏：股는 兩垂而下라<sup>22)</sup>

○ 孔穎達：巽順之位 故巽爲股也

○ 龔原：股則從上而善隨

○ 徐芑舒：股下岐而伏

○ 《八卦醫學》：股部는 人體의 兩側 大腿와 兩腿 사이의 會陰部位로 精血과 尿便이 排出하는 곳이며 男女가 交媾하는 곳이고 胎兒가 出入하는 門이다.<sup>23)</sup>

여기에서 巽卦가 사타구니에 配屬되는 理由를 說明하는데 歷代 注家들은 垂下, 巽順의 意味를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坎爲耳

○ 《類經圖翼·醫易義》：坎爲耳는 陽聰于內也 오<sup>24)</sup>

○ 建安丘氏：耳輪은 內陷하니 陽在內而聰 | 라<sup>25)</sup>

○ 漢上朱氏<sup>26)</sup>曰：坎爲耳하니 陽 | 陷乎陰也니 輪偶者는 陰也오 竅奇者는 坎中之陽也니 精脫 腎水竭則槁라<sup>27)</sup>

○ 孔穎達：坎 北方之卦 主聽 故爲耳也 …… 耳則內陽 …… 坎爲勞卦 聽勞則耳痛也

○ 《八卦醫學》：귀는 心腎의 구멍으로 宗脈이 모이는 곳이며 소리를 듣는 것을 주로 담당한다.<sup>28)</sup>

여기에서 坎卦에 귀가 配屬되는 理由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陽聰于內, 聽 등의 意味를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離爲目

○ 《類經圖翼·醫易義》：離爲目은 陽明在外也 오<sup>29)</sup>

○ 建安丘氏：目睛은 附外하니 陽在外而明 | 라<sup>30)</sup>

○ 漢上朱氏曰：離爲目하니 陰麗乎陽也니 陽中有陰 故로 肉白 | 오 陰中有陽 故로 精黑 | 오 精竭者 目盲은 離火无所麗也오 離爲日하니 寐者는 神栖於心 | 니 其日 | 昃乎인저 寤者는 神見於目 | 니 其日 | 出乎인저<sup>31)</sup>

○ 孔穎達：離 南方主卦 主視 故爲目也 …… 目則外陽而明

○ 徐芑舒：目內虛

○ 《八卦醫學》：眼部는 心肝의 外竅로 陰陽이 만나는 곳이고 精氣가 注入되는 곳이며 神氣가 生하는 곳이고 宗脈이 모이는 곳이다.<sup>32)</sup>

여기에서 離卦를 눈에 配屬하는 理由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陽明在外, 離火 등의 意味를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艮爲手

28)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50.

29)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30)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31)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32)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47.

21)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22)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23)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66.

24)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25)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26) 朱震：1072 - 1138. 中國 南宋의 經學者. 字는 子發, 號는 漢上. 湖北 荊門郡 出身. 《漢上易集傳》을 著述하였는데 程子の 《伊川易傳》을 宗主로 삼았다.

27)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 《類經圖翼·醫易義》：艮爲手는 陽居于前也  
오<sup>33)</sup>

○ 朱子或問：或問 艮을 何以爲手오 朱子曰  
手는 去捉定那物이니 便是艮이니라 又問捉物은  
乃手之用오 不見 取象正意니이다 曰也只是大槩  
略恁地라<sup>34)</sup>

○ 建安丘氏：手는 剛在前하고<sup>35)</sup>

○ 孔穎達：艮旣爲止 手亦能之 持其物故爲手  
也

○ 徐芑舒：手持于上爲止

○ 《八卦醫學》：손은 人體의 맨 끝으로 諸陽  
의 根本이며 血液의 滋養을 받아서 능히 物건을  
 執 수 있으며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두 그 變化가  
 여기에서 보인다.<sup>36)</sup>

여기에서 艮이 手가 되는 理由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捉物, 剛在前 등의 意味를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 兌爲口

○ 《類經圖翼·醫易義》：兌爲口는 折開于上也  
오<sup>37)</sup>

○ 建安丘氏：口는 開于上이니라<sup>38)</sup>

○ 孔穎達：兌主言語 故爲口也 …… 兌 說也  
 一陰出于外而說于物 故天下之說莫如澤

여기에서 兌가 口가 되는 意味에 대해서 歷代  
 注家들은 言語, 說, 開于上 등의 意味를 援用한 것  
 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는 직접 八卦와 人體의 各 部位를  
 配屬하여 說明하고 있는 部分은 없지만 《靈樞邪  
 客篇》에서는 天地의 構成要素와 人體의 構成要  
 素를 하나하나 對比해 가면서 說明을 하고 있다.  
 즉 “天圓地方하니 人頭圓足方以應之요 天有日月하  
 니 人有兩目이오 地有九州하니 人有九竅요 天有  
 風雨하니 人有喜怒요 天有雷電하니 人有音聲이오  
 天有四時하니 人有四肢요 天有五音하니 人有五臟  
 이오 天有六律하니 人有六腑요 天有冬夏하니 人  
 有寒熱이오 天有十日하니 人有手十指오 辰有十二  
 하니 人有足十指 莖垂以應之오 女子는 不足二節  
 이나 以抱人形오 天有陰陽하니 人有夫妻오 歲有  
 三百六十五日하니 人有三百六十五節이오 地有高  
 山하니 人有肩膝이오 地有深谷하니 人有腋膕이라  
 地有十二經水하니 人有十二經脈이라 地有泉脈하  
 니 人有衛氣오 地有草萑하니 人有毫毛라 天有晝  
 夜하니 人有臥起라 天有列星하니 人有牙齒라 地  
 有小山하니 人有小節이라 地有山石하니 人有高骨  
 이라 地有林木하니 人有募筋이라 地有聚邑하니  
 人有膕肉이라 歲有十二月하니 人有十二節이라 地  
 有四時不生草하니 人有無子라 此人與天地相應者  
 也라<sup>39)</sup>고 하였는데 이는 天地가 人體에 集中되어  
 있으며 人體는 하나의 작은 天地라고 說明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天地를 八卦로 설명할 수 있다  
 면 人體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聯關이 되는 卦를 綜合하여 說明하는 注  
 家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例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建安丘氏：震은 陽이 動于下하니 爲足이오  
 艮은 陽이 止于上하니 爲手니 手上而足下也오 巽  
 陰이 兩開于下하니 爲股오 兌는 陰이 兩拆于上하  
 니 爲口니 口上而股下也니라<sup>40)</sup>

33)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34)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35)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36)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55.  
 37)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p. 964.  
 38)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 298.

이는 震足艮手와 兌口巽股를 上下의 原理로 區分한 것이다.

○ 平庵項氏曰 足動股隨하니 雷風相與也오 耳目通竅하니 水火相逮也오 口與鼻通하니 山澤通氣也니라<sup>41)</sup>

이는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山澤通氣라는 周易의 原文의 內容을 援用하여 各 人體部位의 關係를 說明한 것이다.

○ 漢上朱氏曰 人之經脈 | 十有二니 其六은 動於足하고 其六은 動於手하니 動於足者는 震之陽 | 自下而升이오 動於手者는 艮之陽 | 自上而止니 震艮 | 相反이라 疾走者는 掉臂하고 束手者는 緩行 | 니라<sup>42)</sup>

이는 震艮의 相反된 原理와 손발의 相反된 點을 比較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 漢上朱氏曰 故로 寐者는 形閉하니 坤之闔也오 寤者는 形開하니 乾之闔也라 一闔一開에 目暝耳聰하나니 唯善用者는 能達耳目於外하고 唯善養者는 能反耳目於內也니라<sup>43)</sup>

이는 坎離의 相反된 原理와 耳目의 相反된 作用을 比較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 雲峰胡氏<sup>44)</sup>曰 八卦를 近取諸身 | 如此하니 要之컨대 一身之中 | 无非易也라 又豈特此八者爲然哉리오<sup>45)</sup>

이는 여기에 제시된 여덟가지 部位말고도 全身의 모든 組織과 器官에 八卦를 配屬시킬 수 있다

는 觀點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얼굴의 組織 중에 유독 코만이 여기의 配屬에서 빠졌는데 《八卦醫學》에서는 이에 대해서 “鼻部는 相學的으로는 面旺部에 該當하며 洛書의 中宮에 該當하고 明堂의 位置에 處한다. 外象은 土에 屬하고 그卦는 坤卦에 屬한다. 《周易》 중에 귀와 눈, 입의 머리에 있는 세 구멍에 대해서는 配合된 卦가 있는데 코는 中央에 居하여 四正方과 四隅方이 모두 上下左右에 있으며 九宮의 가운데에 居한다. 만일 人體로 卦를 配合한다면 코는 人中의 위에 있으며 四象과 八卦를 人體에 配合하는데 있어서 人體의 가운데는 中央으로 土에 속하며 그卦는 坤卦에 해당하여 萬物을 滋生하는 役割을 한다.”<sup>46)</sup>고 하였다. 그리고, 코는 얼굴의 山이란 象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艮卦에도 配屬할 수 있다.

### 3. 頭面部의 八卦配屬

頭面部에는 臟腑와 相關하는 部位가 있다. 人體의 臟腑는 面部에 모두 그와 相關하는 對應部位를 가지고 있다. 《靈樞五色篇》에서는 “五色之見也 各出其色部”<sup>47)</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面部의 臟腑가 對應하는 位置가 있다는 것을 指摘한다. 여기에 八卦로 配屬한다면 面部의 八卦와 臟腑의 配屬이 되는데 이는 後天八卦가 된다.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0)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41)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42)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43)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44) 胡炳文 : 1250 - 1333. 中國 元代의 經學者. 字는 仲虎, 號는 雲峰. 安徽省 婺源出身. 朱熹의 《周易本義》에 依據하여 이를 折衷, 是正하고 아울러 여러 學者의 學說을 補充하여 《周易本義通釋》을 著述했다.

45)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553.

46)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54.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 226.

☰	額部 ☰ 天庭	☷
右頰 ☱ 白虎	鼻部 面王	左頰 ☳ 青龍
☷	頤部 ☷ 地角	☷

위의 도표는 後天八卦에 根據하여 分布되어 있다. 額部는 天庭으로 離卦에 配屬되고 頤部는 地角이 되는데 坎卦에 配屬된다. 右頰은 青龍이라고 하는데 震卦에 配屬된다. 右頰은 白虎라고 하는데 兌卦에 配屬된다. 鼻部는 面王이라고 하는데 中央에 居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洛書 九宮의 分布라는 것인데 우선은 四正方을 正하고 뒤에 四隅方을 구한다. 그 다음에 心腎肝肺脾를 배속하면 面部의 상관하는 臟腑의 자리가 確定되는 것이다. 《素問刺熱篇》에서는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sup>48)</sup>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提示하고 있는 內容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內容 말고도 《靈樞五色篇》중에는 다른 방식의 人體 配屬이 있는데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膈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俠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膺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腋也 此五臟六腑之節之部也”<sup>49)</sup>라고 하였다. 이 內容을 圖

表化하여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部位〉	〈配屬器官〉	〈配屬卦〉
庭者(이마)	- 首面 -	乾
闕上(前頭)	- 咽喉 -	兌
闕(眉間)	- 肺 -	兌
下極(山根)	- 心 -	離
直下(年壽)	- 肝 -	震
準頭(鼻端)	- 脾 -	坤
面王以上(兩顴之內)	- 小腸 -	離
面王以下(人中)	- 膀胱, 子處 -	坎

위에서 提示한 配屬은 乾坤과 坎離가 모두 上下에 位置하고 있어서 先天과 後天의 原理를 모두 담고 있다.

以上과 같은 頭面部의 部位에 八卦를 配屬하는 方法으로 診斷에 應用하는 것 말고 顏色을 望診할 때에 分類가 되는 다섯가지 색깔에도 卦를 配屬하여 應用하고 있다. 《八卦醫學》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論述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要約하여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sup>50)</sup>.

◎ 青色 - 하늘에 있어서는 風이고 臟에 있어서는 肝이다. 卦에 있어서는 震卦이다. 《周易說卦傳》에서 말하기를 “震 爲雷 爲龍 爲玄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虞翻<sup>51)</sup>은 “天玄地黃호대 震은 天地之雜이라 故로 爲玄黃이라”라고 하였으며 孔穎達은 “震象은 爲玄黃이니 取其相雜而成蒼色也라”라고 하였다. 青色은 肝病을 主하고 寒을 主하며 風을 主하고 痛을 主하고 瘀血 및 驚風 등의 症狀을 主한다.

1985, p. 227.

50)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45.

51) 虞翻: 170 - 240. 中國 三國時代. 吳나라의 經學者. 漢代 易學의 大成者. 字는 仲翔. 浙江省 餘姚 출신. 東吳의 孫權에게 발탁되어 騎都尉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간언을 한 것이 禍가 되어 交州로 귀양을 갔는데 귀양지에서도 講學을 게을리 하지 않아 門徒가 많았다.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 119.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 赤色 - 하늘에 있어서는 熱이 되고 臟에 있어서는 心이 되며 卦에 있어서는 坎卦와 乾卦에 해당한다. 《周易說卦傳》에서 말하기를 “坎 爲水 爲溝瀆 爲隱伏 爲矯輮 爲弓輪 其於人也 爲加憂 爲心病 爲耳痛 爲血卦 爲赤”이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은 “人之有血 猶地有水也 爲赤 亦取血之色也”라고 하였다. 赤色은 心病을 主하고 熱症을 主한다. 《周易說卦傳》에서는 말하기를 “乾爲天 爲圓 爲君 爲父 爲玉 爲金 爲寒 爲冰 爲大赤”이라고 하였다. 赤色이 甚하면 實熱이 되고 약간 붉은 빛이 든다면 虛熱이다. 그리고, 《周易》 原文에 색깔에 대해서 直接的으로 言及하지 않은 卦는 離卦밖에 있는데 《說卦傳》에서는 “離 爲火 爲日”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火色이 赤色이고 日의 象에도 赤色을 配屬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離卦도 赤色에 配屬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 黃色 - 하늘에 있어서는 濕이 되고 臟에 있어서는 脾가 된다. 卦에 있어서는 坤卦에 해당한다. 《周易說卦傳》에서 말하기를 “坤 地也”라고 하였고 《周易坤卦文言傳》에서는 “天玄而地黃”이라고 하였으며, 《易文言傳》에서는 坤卦의 六五黃裳을 解釋하기를 “君子黃中通理 正位居體 美在其中而暢於四支 發於事業 美之至也”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이에 대해서 “黃是中之色”이라고 하였다. 黃色은 脾病을 主하고 虛를 主하고 濕을 主하고 風이 되며 熱이 된다.

◎ 白色 - 하늘에 있어서는 燥가 되고 臟에 있어서는 肺가 되고 卦에 있어서는 巽卦가 된다. 《周易說卦傳》에서는 “巽 爲木 爲風 爲長女 爲繩直 爲工 爲白”이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은 이에 대해서 “爲白 取其潔也”라고 하였다. 白色은 肺病을 主하고 寒證을 主하며 虛證, 氣虛, 血虛를 主한다.

◎ 黑色 - 하늘에 있어서는 寒이 되고 臟에 있어서는 腎이 되며 卦에 있어서는 坤卦가 된다. 《

周易說卦傳》에서는 “坤 …… 爲黑”이라고 하였고 孔穎達은 “爲黑 取其極陰之色也”라고 하였다. 黑色은 腎病을 主하는데 腎虛, 寒證, 痛症, 痰飲과 瘀血을 主한다.

#### 4. 眼部의 八卦配屬

눈을 통하여 疾病을 診察할 수 있다는 論理의 근거는 《內經》에서 찾을 수 있는데 《靈樞大惑論》에서는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于目而爲精”<sup>52)</sup>이라고 하였으며, 《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四氣皆上于而走宮竅 其精陽氣上走于目而爲精”<sup>53)</sup>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十二經脈은 肺와 脾, 腎, 心包 등 말고도 나머지 八條의 經脈이 눈에서 集散하며 十二經脈이 直接的으로나 間接적으로 眼睛과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을 八卦에 配屬하는 方法은 八廓分區法을 들 수 있는데 그 基源에 대해서 《八卦縱橫》에서는 “神醫 華佗는 《內經》의 經絡學說에 根據하여 眼球의 血管 形態와 색깔에 根據하여 ‘看眼診病’의 方法을 提示하였다. 華佗는 八卦의 模型을 사용하여 眼球를 여덟가지 區域으로 나누었으며 왼쪽 眼睛을 爲主로 삼았다. 그 始作은 西北方의 乾卦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順序대로 配屬된다.”<sup>54)</sup>고 하여 八廓分區法이 華佗에게서 始作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眼診療法이 나왔는데 眼部의 疾病과 經絡分布에 따른 八卦 區域의 區分에 根據한다. 穴位는 眼眶 外側을 一周한다. 거리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 342.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 37.

54) 李樞編著, 八卦縱橫, 團結出版社, 北京, 1991. p. 29.

는 眼球에서 一橫指 정도의 거리이다. 上眶은 눈  
썹의 아래가 되고 下眶 部位의 眼眶 주위를 둘러  
나누어서 '眼周眶區穴'이라고 하였다. 모두 八區에  
十三穴이다. 매우 簡明하여 쉽게 認識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治療效果도 매우 좋다.<sup>55)</sup>라고  
하여 現代에 應用되는 眼診療法도 이 八廓分區法  
에 基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다.

八廓은 八卦의 配屬을 利用하여 眼睛과 臟腑  
사이의 經絡連繫關係를 說明하는 것으로 《八卦  
醫學》에서는 이것을 眼部八卦라고 부르고 있다.  
《審視瑤函》에서는 "夫八廓應乎八卦 脈絡經緯于  
腦 貫通臟腑 以達血氣 往來滋養于目 廓者 如城廓  
之謂 各有門路往來 卽匡廓衛御之意也"라고 하여  
八廓이 八卦에 根源하고 있음을 分明하게 밝히고  
있다.

八廓은 傳送廓, 津液廓, 會陰廓, 清淨廓, 養化  
廓, 胞陽廓, 水穀廓, 關泉廓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八卦醫學》에서는 各各의 廓을 八卦를 가지고  
說明하고 있는데, "乾卦는 西北方에 위치하면서  
大腸과 通絡하며 五臟 中에는 肺에 속한다. 肺와  
大腸은 서로 表裏가 되어서 위로 清純한 氣運과  
연결되고 아래로 糟粕을 보내므로 傳送廓이 된다.  
坎卦는 正北方에 위치하면서 膀胱과 通絡하고 五  
臟은 腎에 속한다. 腎과 膀胱은 서로 表裏가 되고,  
水의 化源을 주하여 津液을 輸布하는 일을 하므로  
津液廓이 된다. 艮卦는 東北方에 위치하고 三焦에  
通絡하며 五臟은 命門에 配屬된다. 命門과 三焦는  
서로 表裏가 되며 여러 陰氣를 모아서 百脈에 분  
포시키므로 會陰廓이 된다. 震卦는 東方에 위치하  
며 膽腑에 通絡하고 五臟은 肝에 속한다. 肝과 膽  
은 서로 表裏가 되는데 모두 清靜한 氣運을 주하  
고 穢濁한 氣運을 받지 않으므로 清淨廓이라 한  
다. 巽卦는 東南方에 위치하면서 中焦와 通絡하고

五臟 中에는 心包와 배합된다. 心包와 中焦는 서  
로 이웃이 되면서 包絡이 榮血을 보내어 中焦를  
滋養하여 氣運을 나누고 化生하게 하므로 養化廓  
이 된다. 離卦는 正南方에 위치하면서 小腸에 通  
絡하고 五臟은 心에 속한다. 心과 小腸은 서로 表  
裏가 되면서 여러 陽氣를 담은 胞가 되므로 胞陽  
廓이 된다. 坤卦는 西南方에 위치하면서 胃腸에  
通絡하고 五臟은 脾에 屬한다. 脾와 胃는 서로 表  
裏가 되면서 收穀을 받아서 養生하므로 水穀廓이  
된다. 兌卦는 西方에 위치하면서 下焦에 通絡하고  
五臟은 腎絡에 配合된다. 腎과 下焦는 서로 이웃  
이 되어 陰精이 化生하는 것을 주하므로 關泉廓이  
된다. 그리고, 눈은 전체적으로는 肝에서 開竅하  
며 腎이 主한다. 그러므로, 두 臟器의 絡脈만이 中  
焦와 下焦를 貫通하고 있는 것이다. 왼쪽 눈은 陽  
이다. 그러므로, 卦가 행하는 순서는 順行의 차례  
를 따르고 있고 오른쪽 눈은 陰이므로, 卦가 행하  
는 순서가 逆行하면서 미루게 된다."<sup>56)</sup>고 하여 八  
廓의 作用을 說明하는데 八卦의 原理를 應用하고  
있다. 그 內容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坤	脾	胃	水穀廓
離	心	小腸	胞陽廓
巽	肝絡	中焦	養化廓
震	肝	膽	清淨廓
艮	命門	上焦	會陰廓
坎	腎	膀胱	津液廓
乾	肺	大腸	傳送廓
兌	腎絡	下焦	關泉廓

## 5. 耳部の 八卦配屬

56)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49.

55) 李樺編著, 八卦縱橫, 團結出版社, 北京, 1991. p. 29.

귀에 대한 人體器官의 配屬은 최근에 밝혀진 耳穴의 部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八卦의 配屬도 이 耳穴分區의 原理에 따라 이루어진다. 귀는 마치 胎兒가 거꾸로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頭面은 아래에 있고 手足은 위에 있다. 이에 대해서 《八卦醫學》에서는 地天泰卦의 形象과 같다고 하면서, “地天泰卦의 卦體는 下乾上坤으로 六爻 中에 三陰은 上部에 있고 三陽은 下部에 있다. 乾은 하늘인데 아래에 位置하였고 坤은 땅인데 위에 位置하였다. 陽은 아래에 있으면서 그 氣運은 上升하고 陰은 위에 있으면서 그 氣運은 下降한다. 여기에서 水火既濟와 陰陽相交의 生命過程을 構成하게 된다.”<sup>57)</sup>고 하였다.

耳部の 八卦配屬은 後天卦位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乾卦는 西北方에 居하면서 金이 되고 耳穴의 直腸下段 및 大腸區에 配屬된다. 坎卦는 北方에 居하여 水가 되며 耳穴의 膀胱, 輸尿管 및 부분적인 腎區에 配屬된다. 艮卦는 東北方에 居하며 土가 되는데 耳穴의 腎區와 膽區의 中間에 配屬된다. 震卦는 東方에 居하며 木이 되는데 耳穴의 肝膽區에 配屬된다. 離卦는 南方에 居하여 火가 되는데 耳穴의 胃, 噴門, 食道 및 三管區에 配屬된다. 그 내용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耳輪- 盆腔器官, 扁桃體	-	乾, 離
對耳輪- 脊柱	-	艮, 震, 巽
對耳輪上脚- 下肢	-	坎
對耳輪下脚- 上肢	-	乾
耳舟- 上肢	-	乾
三角窩- 盆腔器官	-	坎
耳甲腔- 胸腔器官	-	兌, 坤
耳甲艇- 腹腔器官	-	乾
耳屏- 鼻咽部	-	坤

對耳屏- 頭部 - 離  
 屏間切痕- 內分泌線, 眼- 離  
 耳垂- 面部 - 離

耳輪 ≡(腹腔)	≡(下腹部) 三角窩	耳舟 ≡(上肢)
耳甲腔 ≡(胸腔)		對耳輪 ≡(肝膽)
耳甲腔 ≡(胸腔)		對耳輪 ≡(脊柱)
	耳垂 ≡(眼)	

## 6. 口舌部の 八卦配屬

### (1) 舌診

《舌鑑辨正》에서는 “舌根主腎命大腸 舌中左主胃 右主脾 舌前中間屬肺 舌尖心包絡小腸膀胱 舌邊左主肝 右主膽”<sup>58)</sup>이라고 하여, 혀를 根據로 舌體에 臟腑의 部位가 應한다고 하는데 “上以候上 中以候中 下以候下”의 診斷法을 援用한 것이다. 즉 舌本은 下部에 해당하고 舌尖은 上部에 해당하고 舌中은 內部에 해당하고 舌邊은 外部에 해당하고 左病은 左舌에 應하고 右病은 右舌에 應한다.

여기에 八卦를 配屬시킨다면 舌尖은 上部와 남쪽에 應하여 離卦가 配屬되고 舌本은 下部와 북쪽에 應하여 坎卦가 配屬된다. 혀의 左邊은 동쪽이 되고 震卦에 配屬되며 혀의 右邊은 서쪽이 되고 兌卦에 配屬된다. 舌中은 안에 있어서 中央이 되므로 坤卦에 配屬된다.

舌部の 八卦圖에 根據하여 舌體와 臟腑의 相關部位를 對應시키면 다음과 같다. 舌尖은 離卦가

57)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50.

58) 梁玉瑜, 舌鑑辨正, 醫聖堂, 서울, 1985. p. 9.

되고 心臟과 小腸에 配屬된다. 舌本은 坎卦가 되어 腎臟과 膀胱에 配屬된다. 혀의 왼쪽은 震卦가 되어 肝臟에 配屬되고 혀의 오른쪽은 兌卦가 되어 肺, 大腸이 配屬된다. 舌中은 坤이 되고 脾胃가 配屬된다. 그 內容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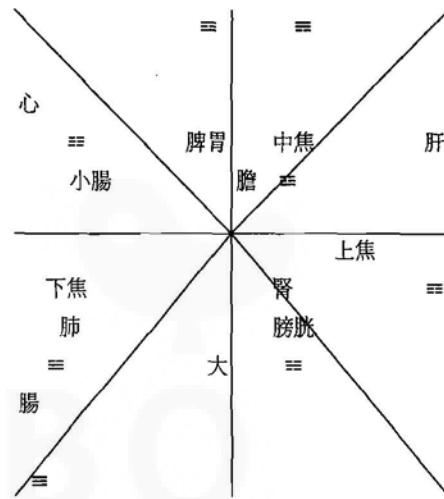
	舌根 ☵	
右邊 ☱	舌中 ☷	左邊 ☱
	舌尖 ☳	

《中醫診斷十四法》에서는 “外國學者인 R. A. Dale 博士는 針刺測量儀(AML)測量을 통해 볼 때 人體를 혀에 透映시킴에 있어서 上部는 舌體의 前部에 相應하고, 下部는 舌體의 後部에 相應한다고 하였다. 中醫에서 舌體의 前中後部가 각각 上中下 三焦에 分別되어 應한다는 理論과 基本的으로 一致한다. 즉 舌尖은 心肺를 主하고, 舌中은 脾胃를 主하고, 舌邊은 肝臟을 主하고, 舌根은 腎을 主한다. 舌의 部位에 따라 臟腑를 살피는 理論과 그 部位의 變化情況을 觀察함으로써 五臟六腑, 四肢九竅의 病理變化를 豫測할 수 있고, 氣血, 津液의 輸布狀況을 反影하고, 疾病의 性質과 病位의 所在을 觀測할 수 있어 臨床에 있어서 重要な 參考價値가 있다.”<sup>59)</sup>고 하였다.

(2) 唇診

눈, 배꼽과 같이 口唇도 圓形을 이루는 器官으로 비교적 쉽게 八卦를 配屬할 수 있으며 그 配屬은 後天八卦를 根據로 한다. 《中醫診斷十四法》에서는 “口를 微閉하여 兩口角을 잇는 하나의 橫線을 긋고, 다시 鼻中溝로부터 上下脣의 중앙을 잇는 세로의 兩口角에 수직선을 그어 口脣을 네등

분한다. 다시 두선의 사이에 중간되는 곳에 비스듬히 線을 그어 口脣을 팔등분한다. 각각 나뉘어진 部位가 八卦의 方位가 되고 각각의 臟 혹은 腑를 하나의 方位에 分配한 후, 그 方位의 形態, 色澤등에 근거하여 生理와 病理變化를 判斷하는 것이다.”<sup>60)</sup>라고 하여 口脣의 分區法과 應用法을 說明하고 있다. 그 內容을 圖示하고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 乾 : 屬肺, 大腸한다. 肺에 熱이 심하게 발한 患者는 口脣下方에 疱疹이 많이 보인다.

◎ 坎 : 屬腎, 膀胱한다. 急性腎炎 患者는 이곳이 紅紫色이고, 慢性腎炎 患者는 이곳이 暗紫色이다.

◎ 艮 : 屬上焦, 膈以上の 胸背部, 胸腔內臟器, 頸項, 頭蓋, 五官한다. 上焦에 火가 旺盛한 患者는 이곳에 쉽게 疱疹이나 口角潰瘍이 發生한다.

◎ 震 : 肝臟區이다. 肝臟에 濕熱이나 痧熱이 있거나 肝臟의 火가 旺盛한 者는 疱疹 혹은 腫脹, 痛, 痒등이 보인다.

59) 劉強編著, 中醫診斷十四法, 金盾出版社, 北京, 1994. p. 31.

60) 劉強編著, 中醫診斷十四法, 金盾出版社, 北京, 1994. p. 24.

◎ 巽 : 屬中焦한다. 中焦疾患(膈膜以下, 肚臍以上, 上肢部, 腰背部와 內臟器官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腹腫과 疱疹이 보인다.

◎ 離 : 屬心, 小腸한다. 心經에 熱이 있거나 小腸經에 熱이 있는 경우에는 右側鼻脣溝(法頰)에 疱疹이 發生한다.

◎ 坤 : 屬脾, 胃한다. 脾胃에 病이 있으면 이곳에 疱疹 혹은 紅腫이 보인다.

◎ 兌 : 屬下焦(臍以下의 小腹部, 腰骶部, 骨盆腔, 泌尿生殖系統을 포괄). 下焦에 濕熱, 瘀血이 있는 者는 이곳에 疱疹, 腫脹, 瘍口角등이 있기 쉽다.

## 7. 鼻部의 八卦配屬

韓醫學에서는 鼻上端의 額部와 連結된 處는 頰이라 하였고 (또는 山根, 下級, 五宮) 前面下部 尖端의 높은 處는 鼻尖(또는 準頭, 面王) 鼻尖 兩方 圓形의 隆起部位는 鼻翼(또는 方上) 額에서부터 鼻尖隆起까지 鼻梁(또는 直下, 天柱, 鼻柱) 鼻의 下部는 鼻孔이라 하였다.

《八卦醫學》에서는 그 部位와 八卦, 臟腑를 配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61)</sup>

鼻端(面王) - 坤卦에 해당한다. 脾臟

眉間(山根) - 離卦에 배속한다. 心臟, 小腸

內眦(眼角) - 乾巽이 배속된다. 膽, 大腸

年壽左右 - 震兌에 배속된다. 肝臟, 肺臟

面王橫面人中 - 坎卦에 배속된다. 腎臟, 膀胱, 子處

兩側鼻翼 - 艮卦와 坤卦에 배속된다. 胃腑

이 內容을 根據로 그림을 그리면 아래와 같다.

다른 部位는 定位하기가 힘들지만 坎離가 垂直으로 定位하고 있어서 後天八卦의 原理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8. 手部의 八卦配屬

손에는 太極, 陰陽, 四象,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 등의 모든 理致가 들어 있어서 이것을 應用한 診斷法, 手指針, 手相學, 象數學 등이 많이 紹介되고 있다. 특히 診斷法에의 應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결같이 그 基本原理를 《周易》의 原理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序頭에서 이야기 하였던듯이 손에는 太極의 象이 숨어 있으므로 先天八卦와 後天八卦가 모두 配屬된다.

《掌紋診病實用圖譜》에서는 “韶華子陰掌診測 全息生命象定位圖”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2)</sup>

◎ 가운데의 三指는 모두 머리가 되며 中指가 中心이 되고 그 兩側의 손가락들이 輔助가 된다. 세 손가락의 第一指節關節이 모두 눈을 象徵한다. 食指는 肝膽을 主하는데 肝은 目を 主하고 目에 開竅하므로 이 눈은 즉 食指의 第一指節關節이다. 無名指의 第一指節關節은 肝血이 되는데 같은 樣式으로 目에 開竅하고 또한 같은 式으로 “眼”이라고 한다.

◎ 小指의 第一指節關節은 命門穴이고 第二指節關節은 腎穴이다. 腎은 骨을 主하고 귀를 主하므로 귀의 形象을 나타낸다.

◎ 小指區는 男女의 生殖系統을 主하는데 이곳은 子息線이 있는 部位로 性機能을 나타낸다.

◎ 手腕紋 上方에는 地區와 拇指區下方, 月區

61)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55.

62) 王大有著, 掌紋診病實用圖譜,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6. p. 127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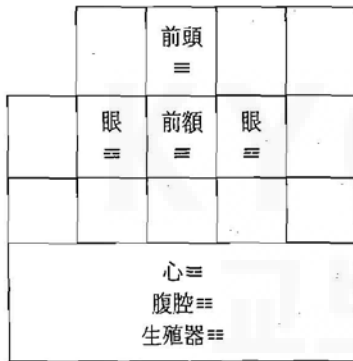
下方이 있는데 地區가 中心이 되는데 이곳은 生殖을 主하는 區域이다.

◎ 中指區 下方은 肺區인데 左右 양쪽 肺의 胸腔이 여기에 거한다. 左拇指의 呼吸器官區는 右肺와 右脾, 咽喉, 器官의 區域이다. 月區의 아래는 완전히 肺의 形象을 하고 있다. 人體의 右側肺의 機能을 나타낸다. 右掌은 이와 반대이다. 生命線上의 肺區는 이와 같은 理致이다.

◎ 中軸線上의 心臟은 心區를 主한다. 拇指區上方의 心臟도 體位와 相反되는 部位와 對應된다.

◎ 生命線 上段의 胃, 十二指腸, 지라, 膽囊, 肝臟은 一體에 屬한다. 그러나, 左掌은 肝의 右葉이고 右掌은 肝의 左葉이다.

◎ 中軸線上의 胃腸消化排泄區는 生命線과 對應된다.



이상의 內容은 全身의 人體器官을 手に 配屬시킨 것으로 乾上坤下의 形象을 取하고 있으므로 先天八卦의 原理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形色手診》에서도 "이른바 形色手診의 八卦定位는 '八卦太極圖(선천팔괘도)'를 따른다. 그곳에서 陰陽氣의 運行과 回復을 季節, 時間, 卦位에 따라서 對應하는 形色의 部位를 따라서 仔細하게 觀察한다. 또 形色의 程度에 따라서 '生'과 '克'의 情況을 分析하고 七情, 六淫方面의 問題를 結合하여 病症을 解釋한다."<sup>63)</sup>고 하여 先天八卦圖를 配

屬시키고 있다.



《八卦與時間醫學》에서는 손을 掌面과 掌背로 나누어 八卦를 配屬시키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後天八卦를 基本으로 配屬하고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sup>64)</sup>

◎ 掌面(陽掌)

○ 巽卦 - 巽卦는 掌面의 食指의 指掌關節 下方의 根部에 位置한다. 巽卦는 八卦 中에 風에 屬하고 肝에 配屬된다. 巽卦의 位置에 손금이 散亂하거나 색깔이 暗滯하거나 肌肉이 陷下되어 있다면 肝氣가 鬱結된 것으로 肝에 瘀血이 있는 것으로 肝疾患과 有關하다.

○ 離卦 - 離卦는 掌面의 小指指掌關節의 下方에 位置한다. 坤卦는 八卦에 있어서 土에 屬하고 脾胃와 서로 짝이 된다.

○ 坤卦 - 坤卦는 掌面의 小指指掌關節의 下方에 屬한다. 坤卦는 八卦에서 土에 속하고 脾胃와 짝이 된다. 婦人科 疾病.

○ 兌卦 - 兌卦는 掌面의 小指指掌關節下方의 橫曲線과 小魚際가 만나는 部位로 尺側에 가까운 部位에 位置한다.

○ 乾卦 - 乾卦는 掌面에서 尺側腕橫紋上에 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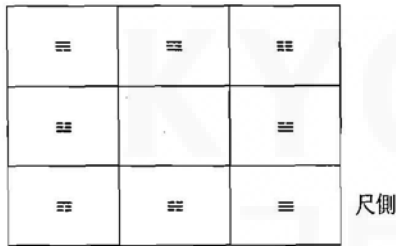
63) 楊旭編著, 形色手診, 天眞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8, p. 37.  
64) 劉炳權 蘇祥編著, 八卦與時間醫學, 廣東科技出版社, 廣東省, 1995, pp. 138 - 141.

置하는데 兌位의 아래에 位置한다. 八卦 中에는 西北方에 位置하며 乾은 天에 屬하고 天空 中에 맑은 氣運에 屬하므로 乾位의 무늬가 散亂되고 色이 紫暗色이거나 灰白色이면서 光澤이 없고 그 位置가 低陷되어 있으면 呼吸系統이 衰竭되고 七情에 의하여 氣運이 傷하여 氣鬱證이 있고 神經衰弱이나 失眠, 心悸 등의 精神病과 有關한 疾病이 있다.

○ 坎卦 - 坎卦는 掌面의 掌心 正下方에 있고 腕橫紋의 위에 있다. 坎卦는 八卦 中에 水와 腎에 屬한다.

○ 艮卦 - 艮卦는 掌面의 拇指側 腕橫紋에 位置한다. 艮卦는 土에 屬하고 脾胃가 主하는 바이다.

○ 震卦 - 震卦는 掌面의 大魚際의 垂直曲線 안에 있으며 魚際穴의 部位에 해당한다. 震卦는 八卦 中에서 木에 속하고 肝에 配屬된다.



위의 內容을 보면 掌面에 後天八卦를 配屬하고 臟腑를 配屬하여 診斷에 應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掌背(陰掌)

○ 巽卦 - 巽卦는 拇指의 桡側 腕關節 前方의 突起部에 位置한다.

○ 離卦 - 離卦는 中指根部의 指掌關節 下方에 位置한다.

○ 坤卦 - 坤卦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八卦의 中心點에 있어서 勞宮穴에 該當한다. 그 두 번 째는 巽卦와 左右가 相對되는 部位에 있다.

○ 兌卦 - 兌卦는 拇指 岐骨中에 있으며 合曲에

該當한다.

○ 乾卦 - 乾卦는 小指와 無名指 岐骨의 陷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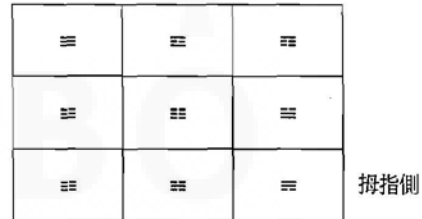
○ 坎卦 - 坎卦는 掌背部의 腕橫紋 前方에 있다.

○ 艮卦 - 艮卦는 食指와 拇指의 根部에 位置한다. 三間穴에 該當한다.

○ 震卦 - 震卦는 小指의 小魚際 部位에 該當하는데 解谿穴에 該當한다.

○ 健康한 사람의 標識 - 八卦에 해당하는 部位가 豐滿하고 色澤이 潤滑하고 靑筋이 露出되지 않으며 凹陷이 없고 壓痛點이 없다.

○ 病理 標識 - 八卦 部位의 皮膚가 凹陷되고 色澤이 暗滯되고 肌肉이 薄하며 단단하다. 심하면 硬結點과 塊象이 있다.



이 內容은 基本的으로 180도를 回轉한 後天八卦에 震卦와 兌卦만이 자리를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는 後天八卦의 原理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八卦醫學》의 내용도 이와 같다.

《八卦縱橫》에서는 手掌 자체가 한쪽의 八卦圖라고 하면서 後天八卦를 配屬하고 있는데 “手掌圖에 우리는 中醫望診의 方法으로 臟腑의 機能과 健康狀況을 診察할 수 있다. 比喩하면 巽位가 隆起되거나 색깔이 粉紅色이면 肝膽部位의 기능이 良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部位의 무늬가 散亂되고 皮膚가 거칠고 색깔이 비교적 暗紫色이면 肝膽의 機能이 衰竭하하였다는 것을 表示한다. 또 離位는 火에 屬하는데 隆起되고 색깔이 粉紅色이면서 亂紋이 없다면 心臟 機能이 良好하고

視력이 비교적 좋다. 만일 심하게 低陷되어 있고 靑筋이 浮氣하면 神經衰弱이거나 心火가 過하게 亢盛한 것을 意味한다. 坎位는 水에 屬하고 肌肉이 柔軟하면서 光滑하다면 泌尿生殖器 系統의 機能이 良好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만일 손금이 어지러우면서 皮膚가 거칠고 색깔이 暗紫色인 것은 腎機能이 衰弱하다는 것을 說明한다.<sup>65)</sup>라고하여 手掌에 八卦를 配屬하여 診斷에 應用하는 方法을 說明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手掌에 後天八卦를 配屬할 때에는 모두 各 部位에 臟腑를 配屬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9. 腹部的 八卦配屬

### (1) 腹診

胸腹部는 臟腑의 相關 部位이다. 胸腹部는 五臟六腑를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臟腑는 胸腹部의 特定 位置에 透映된다. 이에 胸腹部는 臟腑의 相關하는 對應部位이다. 만일 胸腹을 八卦에 配屬하면 그 位置는 西北方은 높고 東南方은 낮아서 하늘이 西北方에서 不足하고 땅이 東南方에서 不足하다는 象을 證明한다.

乾卦와 兌卦는 肺에 配屬되고 離卦는 心臟에 配屬되고 胸中에 居한다. 巽卦와 震卦는 肝膽에 配屬되고 脇下에 居한다. 아울러 小腹部와도 有關하다. 坤卦와 艮卦는 脾胃에 配屬되고 上腹과 大腹에 居한다. 坎卦는 腎과 膀胱에 配屬되며 小腹에 配屬된다. 胸腹部 臟腑의 八卦配屬은 실제로는 胸腹部가 三焦의 部分으로 나뉜 것을 應用하는데 上焦는 心肺가 主한다고 하고 中焦는 脾胃가 主한다고 하고 下焦는 肝腎이 主한다고 한 것을 의미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데 腹部는 臟腑의 그릇이기 때문에 五臟六腑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따라서 後天八卦를 配屬할 수 있다.

### (2) 臍診

臍部는 臟腑의 相關部位가 있다. 배꼽을 神關이라고 하는데 이는 神氣의 穴로서 保生의 根本이며 人體의 玄關이다. 臍部를 八卦에 配屬하면 臍部의 주위에 八卦九宮 및 人體臟腑를 配合한다.

《八卦醫學》에서는 後天八卦를 한바퀴 回轉시킨 그림을 提示하고 있는데 “人體는 배꼽이 中心이 되는데 그 반지름은 一寸五分이다. 坎卦는 正下方에 있는데 葉哲宮이 되고 時期는 冬至에 配合되고 腎臟, 膀胱, 三焦에 配屬된다. 離卦는 正上方에 있는데 上天宮이 되고 時期로는 夏至에 配合되고 心, 小腸, 心包絡이 配屬된다. 兌卦는 左方に 있으면서 倉果宮이 되고 時期로는 秋分에 配屬되며 大腸에 배속된다. 震卦는 右方に 있으면서 倉門宮이 되고 時期로는 春分에 配屬되며 肝에 配屬된다. 乾卦는 左上方에 있고 新洛宮이 되며 時期는 立冬에 該當하고 肺에 配屬된다. 坤卦는 左下方에 있고 玄委宮이 되며 時期는 立秋에 合하고 脾臟에 配屬된다. 艮卦는 右上方에 配屬되고 天留宮이 되며 時期는 立春에 配屬되고 胃腸에 配屬된다. 巽卦는 右下方이 되며 陰洛宮이 되고 時期는 立夏에 配屬되고 膽에 配屬된다. 臍部八卦는 辨證을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判斷을 할 수가 있고 治療를 할 때에도 이것으로 取穴할 수 있으며 臟腑의 所屬을 따져서 症狀에 따라서 治療할 수 있게 한다.”<sup>66)</sup>고 하였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中醫診斷十四法》에서는 先天八卦와 後天八

65) 李樺編著, 八卦縱橫, 團結出版社, 北京, 1991. p. 30.

66)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66.

卦를 모두 配屬하고 있는데 先天八卦를 配屬시킨 경우는 각卦에 全身의 器官을 提示하고 後天八卦를 配屬시킨 境遇는 각卦에 臟腑를 配屬한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臍部八卦는 배의 正中에 位置하여 胸腹과 全身의 疾病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이며 그 八卦圖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先天八卦圖이고 하나는 後天八卦圖이다. 그 배꼽의 分割은 우선은 배꼽을 중심으로 하나의 垂直線과 하나의 橫線을 긋고 다시 두 線을 위에서 말한 交叉線의 中間을 지나가게 斜線으로 긋는다. 그러면 米字와 같은 形態가 된다. 先天八卦와 後天八卦의 서로 다른 分屬에 根據하여 相應하는 卦位와 臟腑를 配屬할 수 있다.”<sup>67)</sup>

◎ 先天八卦: 先天八卦는 주로 人體 外部의 各部分을 配屬한다. 例를 들면 直線上의 乾卦는 머리에 屬하고 下點은 坤이 되는데 발(배)에 屬하고 그 橫線의 左點은 離卦인데 이는 귀(눈)에 屬하고 右點은 坎卦인데 이는 目(耳)에 屬하고 그 左耳의 上部는 兌卦로 口에 屬하고 下點은 震으로 腹(足)에 屬하고 그 右目的 上點은 巽으로 額(股)에 屬하고 下點은 艮으로 手에 屬한다.

《中醫診斷十四法》에서는 각卦에 人體配屬이 《周易說卦傳》의 內容과 다른데 그 原理에 대한 說明이 없고 理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周易》의 內容을 따르기로 한다.

◎ 後天八卦: 後天八卦는 주로 五臟六腑가 配屬된다. 例를 들면 垂直線의 上點은 離로서 心에 屬하고 下點은 坎으로서 腎에 屬하고 그 橫線의 左點은 震으로서 肝에 屬하고 右點은 兌로써 肺에 屬하고 그 橫線의 左點인 肝의 上部는 巽으로 膽에 屬하고 그 下點은 艮으로 胃에 屬하고 그 橫線

의 右點인 肺의 上點은 坤으로 脾에 屬하고 그 下點은 乾으로 大腸에 屬한다.

《中醫診斷十四法》에서는 配屬된 八卦를 診斷에 應用하는 法이 소개되고 있는데 “臍部八卦의 分屬은 다르기 때문에 疾病을 診斷할 때에 區別되는 點이 있다. 先天八卦는 各種 疼痛, 腫瘤의 病症을 診斷할 때 사용하고 後天八卦는 各種 臟腑의 雜病을 診察할 때 사용된다. 臨床의으로 診斷할 때에 臍部八卦의 診法은 주로 觸診을 사용하는데 각 區域에 出現하는 疼痛을 가지고 相應하는 部位와 臟腑의 疾病을 診察한다. 그 觸診의 順序는 시계방향으로 눌러 가는데 가볍게 눌렀다가 점차 重按을 한다. 눌렀을 때 疼痛이 있어서 不便한 者는 疾病이 된다. 臍診의 範圍는 너무 넓게 잡는 것은 좋지 않으며 直徑이 五寸이 되는 範圍에서 施行한다. 小兒에게 臍診을 施行할 때에는 視診法을 쓸 수 있는데 그 색깔과, 凹凸, 形態, 血絡, 斑點등을 살피서 위에 나열한 定位와 對照를 하여 疾病을 診察할 수 있다.”<sup>68)</sup>라고 하였다.

## 10. 足部の 八卦配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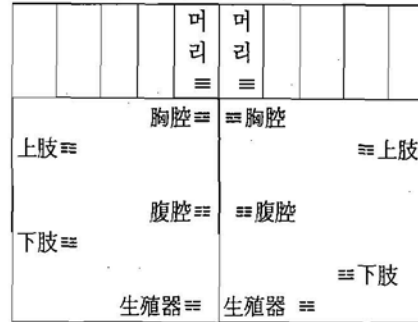
足部도 手部와 마찬가지로 최근들어 反謝區가 存在한다고 하여 醫學的으로 많은 應用이 이루어지고 있다. 《八卦醫學》에서는 한쪽 발에 後天八卦를 配屬하여 臟腑와 配屬하고 있는데 “離卦는 中趾의 아래에 있고 坎卦는 湧泉穴의 아래에 있고 中間의 왼쪽은 震卦가 配屬되고 中間의 오른쪽은 兌卦가 配屬되고 乾卦는 西北에 있고 坤卦는 西南에 있고 艮卦는 東北에 있고 巽卦는 東南에 있다.”<sup>69)</sup>고 하였다. 발도 反謝區가 존재하여 人體의 縮

67) 劉強編著, 中醫診斷十四法, 金盾出版社, 北京, 1994. p. 90.

68) 劉強編著, 中醫診斷十四法, 金盾出版社, 北京, 1994. p. 91.

小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손처럼 完全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므로 先天八卦를 配屬시키지는 못한다.

《形色足診》에서는 “足部病理反射療法定位法”이란 段落을 통하여 足部反謝區를 提示하고 있는데 “人體의 각 組織器官은 足部に 모두 그 反謝區를 가지고 있다. 이런 反謝區는 일정한 規律을 가지고 足部に 分布된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수축된 것과 같은 形象을 하고 있다. 두 발을 모으고 발가락으로부터 순서대로 머리, 목, 어깨, 胸腹腔, 腰部, 骨盤腔이 配屬된다. 그중에 각 內臟器官의 反謝區도 또한 이에 依支하여 順序대로 配列한다. 人體 組織器官의 실제 配列 順序는 相應하는데 心肺는 위에 있고 肝, 膽, 胃, 腸은 가운데 居하고 輸尿管, 生殖腺은 아래에 있다. 心肺는 왼쪽에 있는데 그 反謝區는 왼발에 있다. 肝, 膽은 오른쪽에 있고 그 反謝區는 오른발에 있다. 단지 頸部 이상의 部位는 각 組織器官의 反謝區는 交叉된다. 예를 들면 왼쪽 눈의 反謝區가 오른발에 있고 오른쪽 눈의 反謝區는 왼발에 있다. 足部 反謝區는 人體 器官에 立體的인 空間配列의 規律이 있어서 上下, 高低, 深淺, 左右의 區分이 있다. 足底는 前胸部에 配屬되고 足背는 등과 尺部에 配屬된다. 만일 反謝區가 重疊되었다면 그 對應 組織과 器官도 重疊된다. 人體의 각 組織器官의 生理病理 狀態는 足部の 相應하는 反謝區에 反影되어 나온다. 동시에 足部 反謝區를 자극하는 것으로 相應하는 部位의 組織器官의 疾病을 治療한다.”<sup>70)</sup>라고 하고 있다. 그 內容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內容을 살펴보면 上乾下坤과 上離下坎의 定位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先天과 後天 八卦의 原理를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은 그 動態를 가지고도 診斷을 하는데 《望診遠經》에서는 “診法之分動靜 猶太極之分陰陽也 太極動而生養 靜而生陰 惟人身之動 屬乎陽 靜屬乎陰也”<sup>71)</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말하는 것이다. 正常人의 足部 形態는 運動에 異常이 없고 反應이 敏捷하고 動作이 精確하고 便安한 상태이다. 形態의 표현은 動靜, 強弱, 屈伸, 俯仰의 八種 情況으로 나누어지는데 《八卦醫學》에서는 각각의 動態에 卦를 配屬하고 있다.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sup>72)</sup>.

◎ 動은 震卦에 配屬한다. 《易說卦傳》에서 “震 動也”라고 하였고 震은 一陽이 일어나는 곳이고 萬物이 始作하는 곳이다. 陽은 動함을 主하고 사람이 나이가 적어서 陽氣가 冲盛한 것을 象徵하는데 그러므로 動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 靜은 兌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兌 說也” 兌는 三陽이 그치는 것으로 萬物이 마치는 것이다. 陰은 靜을 主하고 사람이 늙으면 陽氣가 점차 衰하므로 靜하기를 좋아한다.

◎ 強은 乾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69)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72.  
70) 冀振華 主編, 形色足診,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9. p. 11.

71) 王宏, 望診遠經, 五洲出版社, 臺北, 1983. p. 117.  
72)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 271.

“乾 健也”라고 하였는데 하늘의 運行이 健壯하고 君子는 스스로 強하여 쉬지를 않는다. 陽氣가 冲盛하면 強하므로 사람 중에 勞動을 하는 자는 그 形體가 강한 자가 많다.

◎ 弱은 坤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坤 順也”라고 하였는데 陰氣가 冲盛하면 弱하므로 사람의 安逸한 자는 그 形體가 弱한 경우가 많다.

◎ 屈은 坎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坎 陷也”라고 하였는데 一陽이 二陰의 가운데에 빠졌으므로 사람의 寒氣를 받은 者는 그 形體가 屈한 경우가 많다.

◎ 伸은 離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離 麗也”라고 하였는데 二陽이 一陰의 밖에 包圍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熱을 받은 者는 그 形體가 伸하는 경우가 많다.

◎ 仰은 艮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艮爲山”, 이라고 하였는데 艮은 그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사람 중에 陽氣가 盛한 者는 그 形體가 仰하는 경우가 많다.

◎ 俯는 巽卦에 配屬된다. 《易說卦傳》에서는 “巽 入也”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陰氣가 伏한 者는 그 形體가 俯하는 경우가 많다.

動, 強, 仰, 伸은 陽卦가 되고 그 病은 表에 있고 熱이 많고 實이 많다. 靜, 弱, 俯, 屈은 陰卦로서 그 病은 裏에 있고 寒이 많고 虛가 많다. 그리고, 그중에 動靜으로 서로 기르고 強弱으로 서로를 救濟하며 俯仰屈伸으로 서로에게 用이 된다.

와 八卦를 脈法에 配屬하여 논하였다. 예를 들면 “浮脈法天 有輕清在上之象 在卦爲乾 在時爲秋 在人爲肺<sup>73)</sup>”라고 하였고, “沈脈法之 有淵泉在下之象 在卦爲坎 在時爲動 在人爲腎<sup>74)</sup>”이라고 하였고, “洪脈 在卦爲離 在時爲夏 在人爲心<sup>75)</sup>”이라고 하였고, “緩脈在卦爲坤 在時爲四季 在人爲脾<sup>76)</sup>”라고 하였고 “弦脈在卦爲震 在時爲春 在人爲肝<sup>77)</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八卦를 四時에 대표가 되는 脈에 配屬한 것이다. 脈은 四時의 影響을 받으므로 春弦, 夏洪, 秋浮, 冬沈의 變化가 있는 것이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春爲微弦日平 夏爲微鈞日平 秋爲微平日平 冬爲微石日平<sup>78)</sup>”이라고 하였다. 즉 脈象이 四時에 따라 變化하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八卦醫學》에서는 位, 數, 形, 勢의 네가지 側面에 따라서 觀察하는데 이를 “脈의 四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脈位의 象은 浮沈으로 나뉜다. 脈數의 象은 遲數으로 나뉜다. 脈形의 象은 滑澁으로 나뉜다. 脈勢의 象은 虛實로 나뉜다. 이것이 八卦를 대표하는 여덟가지 중요한 脈象이 된다. 脈象八卦는 여러 가지 많은 脈들을 여덟가지로 分類하여 卦로 이름지어서 配屬한 것이다. 浮脈은 乾에 配屬되고 沈脈은 坤에 配屬되고 數脈은 離에 配屬되고 遲脈은 坎에 配屬되고 滑脈은 兌에 配屬되고 澁脈은 艮에 配屬되고 虛脈은 震에 配屬되고 實脈은 巽에 配屬된다.”<sup>79)</sup>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脈象들도 이 여덟가지 脈象에 귀속시켜서 八卦에 配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1. 脈診의 八卦에 따른 分類

### (1) 脈象의 八卦 配屬

醫書에서 脈診에 八卦를 配屬한 것이 보이는 것은 李時珍의 《瀕湖脈學》이다. 李時珍은 四時

73) 朴昞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11.

74) 朴昞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14.

75) 朴昞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33.

76) 朴昞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39.

77) 朴昞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 44.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 65.

79)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p. 275 - 277.

◎ 浮類脈 : 그卦는 乾이 되고 그象은 하늘을 본받는다. 乾卦는 浮, 洪, 濡, 散, 芤, 革의 六脈이 配屬된다. 그特點은 脈位가 모두 浮하다는 것이다.

◎ 沈類脈 : 그卦는 坤이 되고 그象은 地를 法받는다. 坤卦의 脈은 沈, 伏, 牢, 弱의 四脈이 있고 그特點은 脈位가 모두 沈하다는 것이다.

◎ 數類脈 : 그卦는 離卦에 配屬되고 그象은 火에 法받는다. 離卦의 脈은 數, 疾, 促, 動의 四脈이 있고 그特點은 脈數가 비교적 빠르다는 것이다.

◎ 遲類脈 : 그卦는 坎卦에 配屬되고 그象은 水를 法받는다. 坎卦의 脈은 遲, 緩, 澁, 結의 四脈이 있는데 그特點은 脈數가 모두 느리다는 것이다.

◎ 滑類脈 : 그卦는 兌가 되고 그象은 澤을 法받는다. 兌卦의 脈에는 滑脈과 動脈이 있는데 그特點은 脈形이 流利하다는 것이다.

◎ 澁脈類 : 그卦는 艮이 되고 그象은 山을 法받는다. 艮卦의 脈은 澁脈이 있고 그特點은 脈形이 艱澁하다는 것이다.

◎ 實脈類 : 그卦는 巽이 되고 그象은 風을 法받는다. 巽卦의 脈은 實, 弦, 長, 滑, 緊의 다섯가지 脈이 있는데 그特點은 脈勢가 有力하다는 것이다.

◎ 虛脈類 : 그卦는 震이 되고 그象은 우레를 法받는다. 震卦脈은 虛, 微, 細, 大, 短의 五脈이 있는데 그特點은 脈勢가 無力하다는 것이다.

(2) 脈의 診察部位와 八卦의 配屬

《八卦醫學》에서는 寸關尺에 臟腑와 八卦를 配屬하고 그것을 引用하여 脈을 보는 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寸口와 臟腑의 相關部位를 보면 左寸은 心과 膻中이고 左關은 肝膽이고 左尺은 腎이 된다. 右寸은 肺가 되고 右關은 脾胃가 되

고 右尺은 命門이 된다. 八卦를 配屬하면 離南坎北이므로 離卦는 火가 되고 心에 合하며 夏에 應하므로 左寸으로 살핀다. 坎卦는 水가 되고 腎에 合하며 冬에 應하므로 左尺에서 살핀다. 震巽은 木이 되고 肝膽에 合하고 春에 應하므로 左關에서 살핀다. 兌卦는 金이 되고 肺에 合하며 秋에 應하고 右寸에서 살핀다. 艮坤은 土가 되고 脾胃에서 合하고 四季에 應하며 右關에서 살핀다. 乾卦는 陽이 되고 命門에서 合하고 겨울에 應하며 右尺에서 살핀다. 이렇듯이 左手의 寸關尺은 坎震巽離의 四卦에 配屬되고 右手의 寸關尺은 乾艮坤兌의 四卦에 配屬되고 左右手의 陰陽爻의 숫자는 서로 같아서 모두 陰陽이 모두 여섯이므로 모두 二十四爻가 된다. 左右 兩手의 陰陽이 平衡을 이루고 上下가 調和를 이루어서 하나의 體를 이룬다. 脈象에 變化가 發生하면 그 爻의 숫자에 差異가 생겨난다. 陰陽의 爻의 숫자가 심하게 변하면 어지럽게 되고 어지러운 것이 甚하게 되면 危태롭게 되고 危태로운 것이 甚하게 되면 亡하게 된다.”<sup>80)</sup> 고 하였다. 이 내용을 圖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部位	配屬	部位	配屬
寸	心 ☲	寸	肺 ☱
關	肝 ☳☳	關	脾 ☷☷
尺	腎 ☵	尺	命門 ☲

左手 右手  
《醫易問談》에서는 《難經》의 第4難의 內容에 따라 脈의 浮沈에 따라 八卦를 配屬하고 있는

80)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pp. 277 - 278.

데 “心肺는 皆在上之陽 而心者是 屬火하여 爲陽中之陽이라 先天에는 乾三陽之極處오 後天에는 離火居之 而爲陽極發散의 浮而大散之象也니라 肺者是 屬金하여 爲陽中之陰이라 先天에는 乾上爻가 變爲兌오 坎處에 居之 而爲陽收陰生의 浮而短濇之象也니라 肝腎은 皆在下之陰이로대 而肝者是 屬木하여 爲陰中之陽이오 先天에는 離位오 震陽이 居之 而爲陰中陽長의 牢而長之象也니라 腎者是 屬水하여 爲陰中之陰이오 先天에는 坤三陰之極處오 坎陽이 居之 而爲純柔之陰中에 一陽이 內伏하여 有底力의 按之濡 舉而來實之象也니라 脾胃는 先天之震巽處오 艮坤居之 而陰化陽 陽化陰之中和요 而爲戊己中土之氣요 而脾脉在中之象也니라”<sup>81)</sup>라고 하여 浮位에 居하는 心肺 중에 心藏의 ‘浮而大散’한 脉에는 離卦를 配屬하였고 肺藏의 ‘浮而短濇’한 脉에는 兌卦가 配屬되고 沈位에 居하는 肝腎 중에 肝藏의 ‘牢而長’한 脉은 震卦가 配屬되고 腎藏의 ‘按之濡舉而來實’한 脉에는 坎卦가 配屬되고 中位에 있는 脾胃의 脉은 艮坤卦가 配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內容을 圖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部位	五臟	脈象	先天卦位	後天卦象
浮位	心臟	浮而大散	乾卦	離卦
	肺藏	浮而短濇	兌卦	兌卦
中位	脾胃	不浮不沈	震巽	艮坤
沈位	肝藏	牢而長	離卦	震卦
	腎藏	按之濡舉 而來實	坤卦	坎卦

\* 肺藏에는 先天卦와 後天卦에 모두 兌卦가 配屬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는데 그 理由는 先天의 陽中之陽인 乾卦가 心臟을 象徵하므로 先天의 陽中之陽이 한 단계 물러선 兌卦와 臟腑 중에 陽中之陰인 肺가 配屬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1) 李正來, 醫易問談, 東洋學術院, 大田, 1999. pp.81 - 82.

## 12. 八綱辨證과 八卦의 關係

八綱의 原理를 八卦에 配屬하는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方法은 앞에서 提示하였듯이 卦象의 研究와 證象의 研究를 통하여 서로의 關聯性을 찾는 것으로부터 始作한다. 그에 대한 配屬을 試圖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八卦與時間醫學》에서는 陰陽의 總綱은 乾坤에 配屬시키고 나머지 六綱을 六子女卦에 配屬시키고 있다. 震表, 巽裏, 坎寒, 離熱, 肝虛, 兌實의 配屬을 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 表 - 震卦. 震이란 動하는 것이고 봄에 우레가 처음 動하여 萬物이 生發하는 時期이다. 이는 萬物이 初生하는 것에 그 뜻이 있는데 陽爻가 아래에 있고 두 개의 陰爻가 위에 있다. 人體를 가지고 說明하면 體表의 陽이 不足하여 쉽게 風寒의 邪氣가 사람의 體內에 侵入하여 疾病이 될 수 있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 裏 - 巽卦. 巽은 風이 되고 옛말에 病이 있으면 風이 처음이란 말이 있으며 風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을 形象한다. 巽卦는 陰爻가 아래에 있고 두 개의 陽爻가 위에 居하는 것으로 陽爻는 火에 屬하므로 火熱의 證候를 나타낸다. 人體를 가지고 說明하면 風火가 相搏하여 火熱이 안으로 들어간 臟腑의 病을 象徵한다.

◎ 寒 - 坎卦는 坎은 水가 되고 水는 陰이 되어 陰寒이 안에서 盛한 表現이다. 坎卦는 一陽爻가 안에 있고 二陰爻가 위아래에 있어서 陽衰, 陰盛의 象을 나타낸다. 人體를 가지고 說明하면 臟腑의 虛寒을 象徵한다.

◎ 熱 - 離卦는 離는 火가 되므로 火熱의 證候

이다. 熱이 肌膚에 露出되어 體表에 發하는 것이다. 熱은 眞熱과 假熱로 나눌 수 있다. 人體를 가지고 說明하면 人體의 正邪가 鬭爭하는 實熱이나 體虛하여 오는 虛熱을 意味한다.

◎ 虛 - 艮卦는 艮은 山이 되는데 艮卦의 두 陰爻는 아래에 있고 하나의 陽爻는 위에 있다. 人體를 가지고 說明하면 人體의 陽氣가 不足하여 虛證의 證候를 豫示하는 것으로 氣虛와 血虛, 陽虛를 모두 포함한다.

◎ 實 - 兌卦는 兌는 澤이 되는데 八卦學說에서 兌는 가을이 되고 가을은 收斂의 形象이 있어서 農作物을 收穫하는 時期이고 穀物이 倉庫에 들어가는 時期로 充實하다는 뜻이 있다. 兌卦는 두 陽爻가 아래에 있고 一陰爻가 위에 있다. 人體를 가지고 說明하면 人體의 內部가 實한 것과 精氣가 衰하지 않은 것을 象徵한다.

위의 內容은 各 卦의 卦象을 八綱의 證象과 聯關을 시킨 것으로 그 內容을 圖表로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實 ≡	陽 ≡	裏 ≡
熱 ≡		寒 ≡
表 ≡	陰 ≡	虛 ≡

《八卦縱橫》에서는 升降浮沈의 原理를 따라서 八綱辨證과 八卦를 配屬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sup>82)</sup>

◎ 升 - 艮卦는 立春으로 陽氣가 上升하고 正邪가 上焦의 地域에서 交爭하므로 그 勢力을 타서 吐法을 쓰면 治療된다.

◎ 實 - 震卦는 春분에 해당하는데 天氣가 溫和

하고 萬物이 生長하며 人體의 精氣가 充實하며 正邪가 交爭하며 病은 實證이 많다. 治療는 明確히 瀉實祛邪해야 하고 消法을 써야 한다.

◎ 浮表 - 巽卦는 立夏에 該當하는데 陽氣가 表에 浮盛하여 正邪가 相爭하는 것이다. 病은 表證이 많고 治療는 辛散解表法을 써야 하고 汗法을 쓴다.

◎ 熱 - 離卦는 夏至에 該當하는데 太陽이 불타 오르므로 病은 熱症이 많다. 治療는 明確히 清法을 써야 한다.

◎ 降 - 坤卦는 立秋에 該當하는데 陽氣가 下降하고 氣가 表裏의 사이를 行하여 正邪가 交爭하여 半表半裏의 자리에 있게 된다. 治療는 和法을 써야 한다.

◎ 虛 - 兌卦는 秋분에 該當하는데 天氣가 시원해지고 가을에 肅殺의 氣運이 흐르며 사람의 氣運도 또한 虛하다. 虛하면 補法을 써야 하고 扶正祛邪를 해야 한다. 治療에는 補法을 써야 한다.

◎ 沈裏 - 乾卦는 立冬에 該當하고 陽氣가 收斂된다. 正邪가 相爭하므로 病은 裏證이 된다. 治療는 通腑和裏시켜야 한다. 下法을 쓴다.

◎ 寒 - 坎卦는 冬至에 該當하는데 陰寒이 極盛한 것으로 臟腑가 寒邪를 받은 것이다. 病은 寒證이 된다. 治療는 溫法을 써야 한다.

이 內容은 後天八卦의 配屬과 四季節의 運行에 따라 人體의 疾病의 變化가 發生한다는 假說을 提示하는 것으로 “艮卦와 坤卦는 立春과 立秋의 季節에 配屬된다. 이 時期는 一年에 溫熱과 寒涼이 轉變되는 시기이다. 艮卦에서 坤卦까지는 天氣가 陽升하고 陰降하는 時期로 人體의 陽氣도 또한 盛하며 病도 陽症이 많다. 坤卦에서 艮卦까지는 天氣가 陽降陰升하는 時期로 陰氣가 有餘하고 病은 陰症이 많다.”<sup>83)</sup>고 하고 있다. 그 內容을 圖表로

82) 李樞編著, 八卦縱橫, 團結出版社, 北京, 1991. pp.31 - 32.

83) 李樞編著, 八卦縱橫, 團結出版社, 北京, 1991. pp.31 -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浮表 ≡	熱 ≡	降 ≡
實 ≡		虛 ≡
升 ≡	寒 ≡	沈裏 ≡

### III. 結論

人體의 八卦配屬과 그것의 診斷學的인 運用에 대해서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人體에 原則的으로 後天八卦를 配屬시켜야 한다는 假說은 모든 局部診斷에서 後天八卦의 原理가 適用되는 것을 볼 때 妥當하다는 結論을 얻었다.
2. 人體 중 太極의 原理를 가진 全身, 手掌, 臍部에는 先天八卦를 配屬시킬 수 있다는 假說도 各各의 局部診斷을 考察해 본 結果 妥當하다는 結論을 얻었다.
3. 局部診斷 중 精確하게 先後天八卦와 配屬을 이루기 힘든 境遇는 全體八卦圖의 體가 되는 垂直定位인 乾坤과 坎離의 定位를 가지고 先後天의 原理를 파악한다.
4. 先天八卦를 配屬시킬 때는 乾首上 坤腹下의 垂直定位를 考慮하여 該當 局部를 全體 人體의 縮小版으로 認識해야하고 後天팔괘를 配屬시킬 때는 離心上 坎腎下의 垂直定位를 考慮하여 臟腑의 縮小版으로 認識해야 한다.
5. 說明하기 힘든 脈象이나 辨證의 原理를 八卦를 援用하면 쉽게 說明할 수 있는데 脈象의 分類, 部位의 八卦配屬, 浮沈의 八卦配屬, 辨證의 升降浮沈에 따른 說明 등에 應用할 수 있다.

### 參考文獻

1. 金碩鎮, 周易傳義大傳譯釋, 大有學堂, 서울, 1997.
2. 朴吳譯釋, 國譯瀕湖脈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2..
3. 宋点植撰, 醫學輯要, 文耕出版社, 大田, 1991.
4.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서울, 1994.
5. 李正來, 醫易問談, 東洋學術院, 大田, 1999.
6. 編輯部, 周易正音, 洪易學會, 서울, 1996.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9. 劉炳權 蘇祥編著, 八卦與時間醫學, 廣東科技出版社, 廣東省, 1995.
10. 張介賓, 類經圖翼, 圖書出版鼎談, 서울, 中國醫學大系 44卷.
11. 蕭元主編, 周易大辭典, 一中社, 서울, 1992.
12. 朱熹, 周易 貞, 學民文化社, 大田, 1990.
13. 劉杰 袁峻著, 中國八卦醫學, 青島出版社, 青島, 1995.
14. 李樺編著, 八卦縱橫, 團結出版社, 北京, 1991.
15. 梁玉瑜, 舌鑑辨正, 醫聖堂, 서울, 1985.
16. 劉強編著, 中醫診斷十四法, 金盾出版社, 北京, 1994.
17. 王大有著, 掌紋診病實用圖譜,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6.
18. 楊旭編著, 形色手診,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8.
19. 冀振華 主編, 形色足診, 天津科學技術出版

社, 天津, 1999.

20. 王宏, 望診遵經, 五洲出版社, 臺北, 1983.

